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주성필 목사

기회 삼기

마가복음 10:46-52

1. 그때 잡았어야 하는 데하고 아직도 못내 아쉬움이 남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적용하기



2. 바디매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46, 47a절) 이렇게 바디매오가 일상에서 잡았던 기회를 보면서 우리 역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3.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던 무리는 소리 지르는 바디매오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매오는 '그러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며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47-48절) 성경 속에서 역경을 오히려 믿음의 기회로 삼아 역전시킨 사람이나 사건 중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4. 바디매오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50절):

- 예수님께 원하는 바를 구할 때(51절):

-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52절):

■ 적용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Seize an opportunity

Mark 10:46–52

1. Was there ever a time where you were given an opportunity that you regret not taking?
2. Bartimaeus didn't overlook the news of Jesus while he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Vv 46, 47a) Looking at the opportunity that Bartimaeus seized in his daily life, share if there is anything that we also should use as an opportunity?
3. The crowd who called Him Jesus of Nazareth rebuked Bartimaeus to be quiet. 'But' he faithfully shouted even louder confessing Jesus as the Son of David. (Vv 47-48) Can you think of any person or event in the Bible that turned adversity into an opportunity of faith?
4. What did Bartimaeus put down to follow Jesus? Share what you need to let go of to seize the opportunity to follow Jesus.
 - When Jesus called him (V 50)
 - When you ask Jesus what you want (V51)
 - When Jesus said to go (V 52)

Apply to Life

